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xx	학번	2022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대학교는 바로 앞에 버스를 탈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skytrain을 탈 수 있는 Langara-49th Avenue 역이 있어서 수업이 끝난 후 집에 가거나, 놀러갈 때 매우 편리했다. 학교의 규모는 매우 크지는 않았다. 우리는 건물 A 위주로 사용했고 점심시간에 다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넓은 카페테리아와 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살 수 있는 팀홀튼이 A 건물에 있어 편했다. 랑가라 대학교 방학 기간이라 랑가라 대학교 학생은 거의 없어서 조용하고 건물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
수업	단기어학연수 1달~2달전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내줘서 각자 집에서 온라인 테스트를 보았다. 듣기 위주였고 문장을 배열하거나 빈칸을 채우는 간단한 문제들이었다. 각 반은 14명 정도씩이고, 순천향대학교 학생들, 일본에서 온 학생들, 중국인 학생 1명, 브라질 학생 1명이 3개의 반으로 나뉘었다. 수업은 매일조를 나누어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스몰토크를 하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며 영어로 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바인더에 있는 내용들로 global citizenship, grammar, cultural difference에 대해 수업을 하였다. 매 수업마다 롤플레이같은 작은 발표를 시키셨고, 조별로 ppt를 만들어 발표하는 프로젝트도 2번 있었다. 밴쿠버 박물관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global citizenship에 대한 내용의 프로젝트였다. 선생님은 에너지가 넘치시고 학생들을 잘 이해하려 해주시는 분이셔서 반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항상 어제는 어디에 갔다왔는지 물어봐주시고 좋은 장소들도 추천해주셔서 계획을 짤 때 도움이 되었다. 수업 준비는 매일 엄청 크고 무거운 바인더를 챙겨야했다. 다들 수업이 끝난 후 놀러갈 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바인더 안의 종이만 들고 다니거나 바인더가 들어갈만한 책가방을 매고 다녔다. 과제는 홈스테이 인터뷰 과제, 10줄 정도 써야하는 바인더 내용물 과제 등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밴쿠버를 즐기라고 항상 하시며 과제를 많이 안 내주셔서 부담이 전혀 없었다.

Activity	<p>1. Vancouver tour 내용: 밴쿠버의 유명한 장소들을 하루안에 다 돌아보는 활동이었다. 5명정도씩을 조를 나누어 가이드와 함께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다. 많은 장소를 정해진 시간안에 가다 보니 눈도장만 찍고 오는 느낌이 들어 나중에 따로 다시 가게 되었다. 준비물 : 나눠주는 활동지, 펜, compass card 추가비용: 점심 사먹는 비용</p> <p>2. Vancouver museum 내용 : 오전 수업 후 오후에 스쿨버스를 타고 다같이 밴쿠버 박물관을 자유롭게 돌아보는 활동이었다. 박물관 뒤편의 공원이 바다가 보여 정말 예뻐다.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친구들과 바로 다른 곳으로 놀러갔다. 준비물 : 바인더 내용물, 펜 추가비용 : 없음</p> <p>3. Kayaking 내용 : 오전 수업 후 오후에 스쿨버스를 타고 다같이 Deep cove에서 2인 1조로 카약을 타는 활동이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모자를 써야했다. 집에 방수팩이 있어서 가져갔는데 너무 유용했다. 바지가 많이 젖어서 갈아입어야 했다. 수건은 가져갔지만 쓰지는 않았다. 끝나고 자유시간을 줘서 유명한 도넛집에서 도넛을 사먹었다. 준비물 : 긴팔, 긴바지, 여벌옷, 수건 추가비용 : 없음</p> <p>4. Acquarium 내용 : 오전 수업 후 오후에 스쿨버스를 타고 다같이 아쿠아리움을 자유롭게 구경하는 활동이었다.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다른 곳으로 바로 놀러갈 수 있었다. 준비물 : 없음 추가비용 : 없음</p> <p>5. Capilano bridge 내용 : 오전 수업 후 오후에 스쿨버스를 타고 다같이 캐필라노 산을 자유롭게 구경하는 활동이었다. 하이킹 느낌보다는 높은 다리를 건너고, 숲을 구경하는 느낌이었다. 끝나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준비물 : 편한 복장, 신발 추가비용 : 없음</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첫 주는 밖이 에어컨을 튼 것처럼 시원, 건조하고 쇼핑몰같은 실내가 덥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상쾌하고 좋았다. 하늘이 항상 아름답고 시원해서 오래걸어도 힘들지 않다고 느꼈다. 둘째 주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한국의 여름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피부가 탈 것 같아서 얇은 바람막이를 입었다. 셋째 주는 추워지기 시작해서 바람막이를 매일 입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추워서 방에서 긴팔을 입고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비가 조금 왔지만 대부분의 날이 화창하고 시원했다.</p>
안전	<p>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위험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E hastings 거리를 어쩔 수 없이 버스로 지나가게 될 때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Downtown 같은 곳에서는 homeless도 많았다. 소지품을 잘 챙기라고 하셔서 한국에서와는 달리 카페에서 자리를 잡을 때도 소지품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다.</p>
숙소	<p>기숙사() 홈스테이 (v) 외부 숙소() 기타()</p> <p>홈스테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는 곳이었고 사전에 작성한 리스트가 잘 반영되었다고 느꼈다. 싫어한다고 표시한 음식은 절대 주시지 않으셨다. 샤워시간 같은 규칙은 하나도 없었으며 늦게 들어와도 샤워와 드라이기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빨래도 가끔 대신 해주시고 밴쿠버를 즐기고 가는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며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셨다.</p>
식사	<p>기숙사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v) 기타()</p> <p>홈스테이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 도시락을 싸주셨다. 항상 같은 재료의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주셨지만 생각보다는 질리지 않아서 3주동안 샌드위치 점심을 먹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샌드위치가 너무 질려서 힘들어했다. 다른 친구들은 샌드위치 말고 다른 음식을 싸달라고 부탁드려서 나중에는 메뉴가 조금 바뀌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샌드위치를 싸왔고, 한국에서 가져온 컵밥을 먹거나 핫반을 먹는 친구들도 있었다. 카페테리아에 전자레인지가 많아서 편리했다. 저녁에는 매일 나가서 놀았기 때문에 외식을 했으며 가격이 tip과 세금 때문에 항상 2만원이 넘었다. 매일 밤에 들어왔기 때문에 홈스테이에서 저녁을 먹을 일은 별로 없었지만 집에서 밥을 먹겠다고 미리 연락을 드리면 밥과 닭다리구이, 양념고기 등을 차려주셔서 먹을 수 있었다.</p>

교통	Langara 대학도 49 th , 홈스테이도 49 th 이어서 집 바로 앞의 버스 정류장에서 49번 버스를 타고 13분정도 걸렸다. 주말이나 오후에 놀러갈 때도 49번 버스를 많이 이용했으며, langara 49 th Avenue 역에서 skytrain도 자주 이용했다. 버스와 skytrain 배차 간격이 짧아서 편리했으며, 교통이 이용하기 간단하고 편하다고 생각했다. 구글 맵이나 transit을 이용하여 길을 찾았으며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compass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richmond에 갈 때는 zone이 달라 충전을 직접해야 해서 약간의 추가비용이 들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입장료, ferry	10만원	
기념품	60만원	아이스 와인, 연어육포, 메이플 과자, 꿀 등
쇼핑	30만원	
외식	50만원	
합계	1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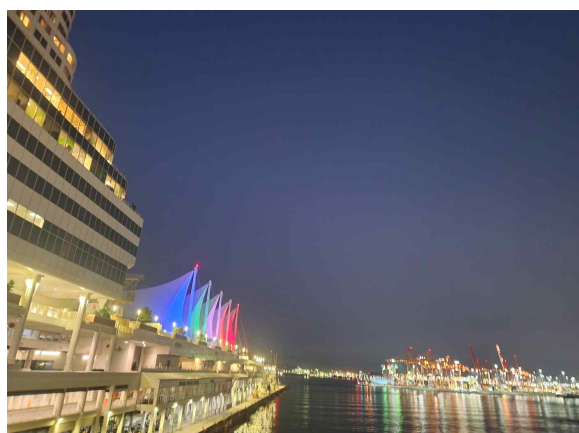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하기전 홈스테이 호스트와 메일을 통해 드라이기, 수건, 샤워용품 등을 챙겨가야 하는지 등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가는 것이 좋다. 홈스테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가기 보다는 기대를 최대한 내려놓고 가는 것이 좋다.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규칙도 없고 음식도 맛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캐리어는 큰 거 1개, 작은 거 1개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캐리어 1개만 가져오면 기념품을 넣을 자리가 없어 정말 곤란했다. 짐을 다 싣을 때 캐리어 자리가 남더라도 작은 거 1개, 큰 거 1개를 챙겨가면 한국에 올 때 훨씬 편하다. 옷을 다양하게 챙기는 것이 좋다. 두꺼운 옷들보다는 반팔 여러장에 걸칠 수 있는 바람막이나 겹옷을 챙기는 것이 가장 좋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기는 것이 좋다. 홈스테이 가족들을 위한 선물로 미니약과 등 먹을 것을 챙겼다. 홈스테이 배정결과가 나오면 가족의 형태에 따라 선물을 잘 고민해서 사가는 것이 좋다. 대가족인지, 부부인지, 아이들이 있는지에 따라 부담스럽지 않을 간단한 선물을 사가는 것이 좋다. 첫 날에 드리면 어색함도 풀 수 있고, 대화 소재가 생겨서 좋았다. 같은 반 일본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한국 간식같은 것을 챙겨가면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이 챙겨가면 나중에 버릴수도 없고 가져오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만 챙겨야 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동안 밴쿠버에서 생활하며 밴쿠버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날씨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놀러 갈만한 좋은 곳이 많았다. 모든 일에 여유가 넘치고 배려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런 여유있는 삶이 너무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매일매일 학교가 끝나면 어디에 갈지 고민해서 놀러갔다. 3주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까워서 조금 힘들더라도 3주 동안 알차게 놀았다. 밴쿠버에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놀러다녔다. 특히, 밴쿠버의 바닷가가 너무 좋았다. 키칠라노, 잉글리시 베이, 포트 무디 등 여유있게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과 배구를 하는 사람들, 버스킹을 구경하며 바다를 보면 한국과는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3주 동안 매일을 알차게 놀았더니 밴쿠버를 떠나는 마지막 날에 아쉬운 느낌이 없었다. 후회없이 놀았고 많이 배웠다. 수업에서 만난 일본 친구들과 자주 같이 다녔는데, 영어로 소통을 해야하니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 좋았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신기한 점도 많이 발견하고 재미를 느꼈다. 밴쿠버에 도착한 첫날 슈퍼에서 음료수를 살 때 첫 실전 영어라서 많이 긴장했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질문을 하고 어렵지 않게 주문을 하는 모습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를 많이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 영어 실력도 늘고 더 활발하고 밝아진 느낌이 들었다. 이번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는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몇 배 그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밴쿠버가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본 친구들과 생활하며 일본이 더 궁금해지게 되었다. 앞으로 다른 나라 여행을 갈 때 자신있게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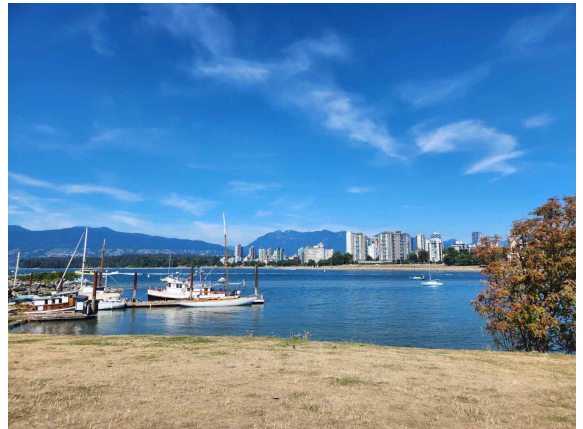
Canada place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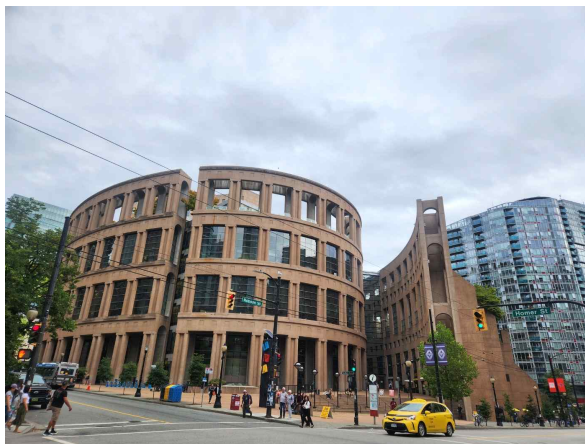
Kitsilano b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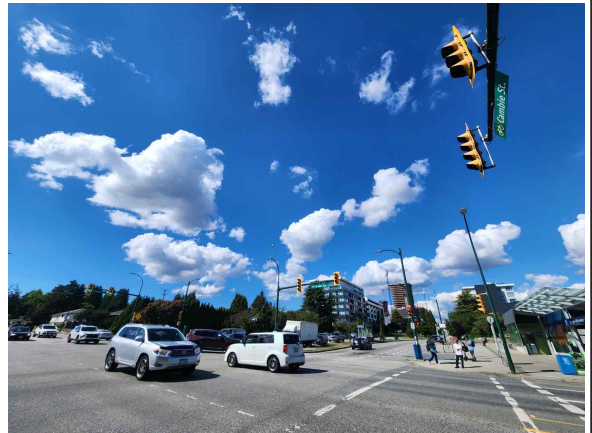
Victoria island



Vancouver museum 뒤 쪽의 공원



밴쿠버 도서관



날씨가 가장 좋았던 날 Langara 49th
Avenue 역 앞의 모습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xx	학번	2021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Langara College는 캐나다 BC주 밴쿠버에 위치한 대학교입니다. 주소는 100 W 49th Ave, Vancouver, BC V5Y 2Z6로 구글맵에 검색하시면 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 SKY TRAIN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다운타운, 게스타운, 매트루 타운으로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p> <p>학교는 전체적으로 평지에 설립되어 있으며 규모는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도서관, 학생회관, 데이케어 센터 등 여러 건물이 있지만 SEL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A동 건물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 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팀 홀틴스, 스타벅스, 서브웨이(방학 중 운영 안 함), 학생회관 식당 등이 입점해 있어 간식이나 식사를 해결하기 좋았습니다.</p> <p>건물 내부는 깨끗한 편에 속하며 특히 화장실 청결도가 좋은 편입니다. 모든 화장실에 물비누가 배치되어 있고 핸드 드라이기 및 종이 타월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일어나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구조이고 벽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내려갑니다.</p> <p>분위기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며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무지개 깃발이나 자동문처럼 곳곳에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p>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의 경우 파견 전에 알려준 시험을 통해 레벨을 나누어 분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원은 각 반에 15명 정도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브라질인처럼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첫날의 경우에는 전체 ot를 하고 오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함께 있다보니 EO(English Only)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보통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진행하고 15분가량의 쉬는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이후 3시까지 오후 수업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은 따로 살 필요 없이 바인더와 공책을 제공해 줍니다. 필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주 차별로 큰 주제가 정해져 있으며 말하기, 문법, 발표, 읽기, 듣기 등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경우는 반별로 다른 교수님이며 한 교수님이 3주 동안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주차는 English Essentials, Exploring Langara college, A to Z Canadian Words, Homestay life, Map activity, Homestay interview atc 활동을 하였고 직접 여행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듣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모듈별로 나뉘어져 여러 가지 캐나다의 팜플릿을 이용해서 발표자료를 만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뒤에는 교수님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과제로는 짧은 에세이를 써오기가 있었으며 필수 과제와 선택 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주차는 Cultural Studies, Culture shock,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The Iceberg concept of culture, Culture Comparison, Culture Contrast 등의 주제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사문을 읽고 맥락을 파악하는 수업으로 요약문 만들기, 빈칸 채우기 등의 활동을 하였고 늘 진행하는 스피킹 게임도 수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 뒤에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 언어적인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언어적 언어를 어떻게 스피치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Personal space에 대해서 조별 발표를 하였고 피피티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10분가량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Personal space에 대해서 비교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밴쿠버 뮤지엄에 다녀온 후 가장 기억 남은 것들이라는 주제로 스피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조별 발표로 주로 조별끼리 알아서 소주제를 정하고 내용구성을 하여 피피티를 만들고 발표를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 뒤에는 문법 진도를 나갔습니다. 문법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에세이를 써 가면 문법, 어법, 맞춤법 등 자세히 피드백 해주시니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3주차 Global Citizenship, Volunteering Reduce, Reuse, Recycle, Pay it Forward 등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고 어떤 능력을 함양하면 좋은지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문을 읽고 중심 내용 파악하기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한가지 발표 과제를 정해서 피피티를 만들고 발표를 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서 만들게 됩니다. 모든 조가 발표를 하며 모든 조원이 다 발표에 참여해야 합니다.</p> <p>3주차에는 특별히 진도를 다 나간 뒤에 피크닉을 나가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분반 별로 장기자랑이나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서 Closing Ceremony를 참여하게 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학교 프로그램으로 정해져있는 Activity로는 Discover 밴쿠버, 밴쿠버 뮤지엄, 밴쿠버 아쿠아리움, 딥코브 카약킹, 캐필라노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모든 반이 단체로 가는 활동이며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모여서 스쿨버스로 같이 움직이거나 대중교통으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체험학습 이후 일정은 학교로 돌아오거나 그곳에서 해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오전 수업을 하고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미션이 있습니다.</p> <p>Discover 밴쿠버는 첫 번째 주에 있어선 체험학습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 학생 인솔자가 있었습니다. SKY TRAIN을 타고 이동을 하였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운타운으로 가서 게스타운 시계를 보고 주변 상점에서 쇼핑을 진행한 뒤 캐나다 플레이스에 가서 올림픽 성화 장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랜빌 아일랜드로 이동해 장난감 마켓과 퍼블릭 마켓에 가서 구경을 하고 점심을 먹은 뒤에 페리를 타고 올림픽 빌리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사이언스 뮤지엄에 도착한 뒤 해산하였습니다.</p> <p>밴쿠버 뮤지엄은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학교에서 먹은 뒤에 스쿨버스로 다 같이 이동하였습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의 삶과 전쟁 이후 캐나다의 모습, 지금의 다양성을 만들기까지의 캐나다의 역사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드레스 그리고 마호가니 나무를 이용한 원목 작품들을 전시해 두었으며 약 2시간 정도 전시물 관람을 진행한 뒤에 해산하였습니다. 주변에 해변과 공원이 있어서 산책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p>

	<p>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p> <p>카약킹의 경우에는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점심을 먹고 다 같이 스쿨버스를 타고 딥코브에 가게 되었습니다. 카약을 탈 때는 스마트폰이 바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워터 프루프 가능한 비닐팩을 한국에서 챙겨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옷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여벌 옷과 젖은 옷을 담을 비닐 봉지를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p> <p>아쿠아리움은 오전 수업 이후에 점심을 먹고 스쿨버스로 다같이 이동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아쿠아리움이 굉장히 크고 볼 것이 많아서 2시간은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3시에 해산을 하고 나서도 5시까지 볼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관람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해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p> <p>캐필라노 브릿지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고 출발 하였습니다. 노스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쿨버스로 타고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하였는데 브릿지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공예품들도 볼 수 있고 나무 위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어드벤처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노스 밴쿠버로 가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해산하지 않고 랑가라 대학까지 다 같이 돌아옵니다.</p> <p>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갈 수 있어 이런 내용을 확인하여 학교에서 갈 곳을 제외하고 개인 여행 일정을 짜는 것을 추천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밴쿠버는 8월 날씨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밴쿠버는 공원이 매우 많고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공기의 질이 매우 좋습니다. 도착한 날도 매우 화창하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비가 내리지는 않았어서 여행하기에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대체 적으로 23~28°C 정도의 기온을 유지하나 아침저녁으로 15°C까지 떨어져 얇은 가디건이나 긴팔 상의를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낮이 매우 길기 때문에 선크림은 필수이며 양산이나 모자를 꼭 챙겨오는 것을 추천합니다.</p> <p>한국과 가장 큰 다른 점은 건조함입니다. 날씨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인공눈물을 소지하고 핸드크림을 꼭 발라야 합니다. 건조한 만큼 산불도 잘 난다고 합니다. 3주 차에 큰 산불이 나서 며칠간 하늘이 흐렸고 기온</p>

	<p>또한 떨어졌었습니다.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안전</p>	<p>현지 안전 상황</p> <p>홈스테이 주변 및 통학 거리와 근처 여행하는 곳을 다 포함해서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학교 및 현지인들이 공통적으로 E-Hastings 거리와 차이나타운을 언급하며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노숙자들이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거리를 혼자서 가거나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맵의 경우 위험한 곳에서 환승을 하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가능하면 돌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한국과 달리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두거나 가방을 무방비하게 내려놓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p>
<p>숙소</p>	<p>기숙사() 홈스테이 (0)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3층으로 지어진 전원주택으로 반지하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반지하 구조는 주방과 화장실, 작은 방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습니다. 방 자체는 깨끗하고 나쁘지 않았으며 주방에 창문이 크게 있지만 방안에는 작은 창문밖에 없어 햇빛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방 안 구조는 옷장, 침대, 책상, 서랍장, 스탠드 등,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청소기 쓰레받기 대 걸레 등 청소도구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일주일에 한번 씩 청소를 하였습니다.</p> <p>홈스테이 가족들과는 분리되어있는 반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고 세세한 규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욕조를 사용하고 나서 정리하거나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 지 등 간단한 생활 규칙이 있었습니다.</p> <p>가장 힘들었던 점은 열쇠를 사용과 보안 알람 설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열쇠 사용 경험이 거의 없기에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실수가 많았고(생각보다 잘 열리지 않았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지갑에 체인을 걸어 보관하였습니다. 열쇠로 문이 안 열려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열쇠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1분 안에 문을 따고 안에 들어가서 알람 비밀번호를 입력해 꺼야 해서 늘 긴장하고 집에 들어왔던 것이 생각납니다. 1분 안에 알람을 해제하지 않으면 집 전체에 경보음이 울립니다.</p>

	<p>집 밖으로 나갈 때도 알람을 설정하고 1분 안에 문을 잠귀야지만 경보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분명 알람 설정을 해 두었는데 홈스테이 마미로부터 알람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익숙해지고 실수를 안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p>
<p>식사</p>	<p>기숙사식당() 홈스테이 (0) 외부식당 (0)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다 홈스테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각 홈스테이 별로 다른 점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아침에는 시리얼이나 과일 샐러드, 요거트, 토스트, 우유 정도를 먹고 점심은 준비되어있는 재료를 가지고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학교에는 전자레인지가 배치되어 있어 쉽게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의 경우에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먹었는데 가족별로 저녁 시간이 다 달라 일반화를 할 수 없지만 저의 홈스테이 가족의 경우에는 저녁 6시라서 굉장히 빨리 먹는 편에 속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여러 곳을 들렀다 오면 6시 시간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반 몇 번 빼고는 거의 밖에서 사 먹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면 냉장고에 남겨주셨고 남은 식사를 다음날 점심으로 싸가기도 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저녁은 밖에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p> <p>처음에는 빵과 파스타 등의 음식들이 좋았지만 매일 같은 음식을 먹려고 하니 굉장히 질리기도 하였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물이 있는 식단이 아니어서 국물이 굉장히 그리워졌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시내버스를 이용해 통학을 하였습니다. 제 홈스테이 집 기준으로 5분 정도 정류장으로 걸어간 뒤 UBC행 49번 버스를 이용하면 20분 안쪽으로 Langara College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49번 버스의 경우 10~15분에 한 대씩 운행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p> <p>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Monthly Compass Card(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Compass 카드의 경우 버스와 SKY TRAIN 모두 이용 가능하며 버스의 경우는 제한없이 SKY TRAIN은 (1) zone에서 무제한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4) zone로 가는 SKY TRAIN을 이용하려면 요금 충전이 필요하지만 6:30pm이 넘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떤 zone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에 있는 구분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리치몬드로 가거나 노스밴쿠버로 가는 씨버스(배)를 타는 경우 모두 zone을 넘어가는</p>

	<p>것입니다.</p> <p>한국과 다르게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이 없어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TRANSIT 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글맵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기에 두 개 다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밴쿠버 자체는 기획도시라고 생각될 만큼 도로가 체크 무늬처럼 반듯하고 직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 간의 이동시간이 1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버스의 형태는 우리나라와 달리 긴 트램처럼 생겼고 문이 세 개입니다. 정류장에 멈추고 싶다면 창문쪽에 달려있는 줄을 당기면 됩니다. 버스 문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손잡이를 살짝 밀어주면 열리게 됩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CAD 1300\$	여행, 쇼핑, 식사
합계	약 4,3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환율을 잘 보고 미리 환전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현지에 가서 현금을 뽑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환전을 충분히 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랜빌 아일랜드처럼 현금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끼리 밥을 같이 먹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동전 종류를 미리 알고 가면 돈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p> <p>캐나다는 카드 사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잘 발급해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드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 카드를 추천</p>
--

합니다. 보통 본인 인증을 할 때 자신 명의의 카드와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문 면허증도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니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출국 전 연락을 하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경우처럼 홈스테이가 갑자기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출국 일주일 전에는 연락을 주고 는 것이 좋습니다.

홈스테이는 보통 수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건을 가져가되 너무 많이 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다른 변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챙겨가야 하는데 2개 이상 그리고 멀티 콘센트를 가져가면 편리합니다. 드라이기는 변압기를 사용할 시 고장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지 에 가서 2만원 정도하는 드라이기를 구매하시거나 홈스테이 가족의 드라이기를 빌려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금방 건조가 됩니다.

홈스테이 가족 선물들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팔지 않는 한국음식(약과, 봉어빵, 부각 등)을 준비하고, 작은 기념품 정도를 준비해 갔습니다. 하지만 현지 에 도착해 보니 동네 작은 슈퍼에서도 거의 모든 한국 음식과 과자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국 화장품(마스크 팩이나 크림 등)을 사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견 시점이 8월 6일이고 2학기 수강 신청 날짜가 8월 중순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수강 신청을 캐나다에서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담는 날짜를 잘 계산해야 하고 수강신청 날짜와 시간을 잘 계산 해야 합니다. 한국 시간 오전 10시는 캐나다 시간 오후 6시입니다. 랑가라 컬리지 학교 내에 컴퓨터 실이 있지만 방학 중에는 5시에 학교가 문을 닫기 때문에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나다 특히 밴쿠버는 공원과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레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모기는 작고 매우 독한 편에 속합니다. 모기약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크닉을 좋아한다면 공원이나 해변가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피크닉 매트 를 챙겨온다면 더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리어 무게를 재는 손저울을 챙겨간다면 불안하지 않게 짐을 쌀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에 10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긴장되었고 앞으로의 여정이 매우 기대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았던 저는 신나있었고 캐나다의 화창한 날씨를 느끼고, 질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기대하였던 외국의 느낌이 나기보다는 한국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더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입국심사를 하고 나서 게이트를 나가 zoom에서 만났던 선생님을 실제로 만나고 영어로 대화하면서 진짜 캐나다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공항으로 우리를 데리러 온 것은 만화 영화에서 보았던 노란색 스쿨버스였습니다. 심슨에 나올 것처럼 보이던 스쿨버스를 보면서 신기했던 것도 잠시 무거운 캐리어를 좌석까지 옮겨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버스에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람을 쐬며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홈스테이 가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집을 가지고 나가 바로 홈스테이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가족들일지 궁금했었는데 제 이름이 불리고 뒤돌아보았을 때 홈스테이 마미가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을 때는 남편분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 집을 옮겨 주며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영어로 인사를 했고 정말 고민 끝에 영어 이름인 Sarah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차로 가면서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가족들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집을 대충 풀고 나서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정말로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고 잠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잘못해서 집 전체 경보음까지 울리고 너무 놀랐던 기억만이 남아있습니다. 집의 위치나 상태 그리고 가족까지 큰 불만 사항은 없었지만, 가족들 모두가 홈스테이 학생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녁을 먹고 학교를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감하게 밖으로 나가보았고, 한국과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버스를 타면서 벨이 아닌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떤 원리로 스탱 표시가 만들어지는지 궁금했고, 버스를 타면서 어떤 정류장에 내려야 하고 타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버스 정류장 이름이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어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구글 맵 위치를 잘 보면서 가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버스처럼 정류장과 버스 방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늘 위치를 확인하면서 다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타지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신경을 쓰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한정거장을 놓치거나 일찍 내리는 등의 자잘한 실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룸메를 만났을 때는 어색했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았지만 그 부분은 점차 나아져 갔습니다. 룸메와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은 없지만 매일 아침 서로에

게 인사를 하고 학교를 같이 가면서 어제는 어떤 것을 했는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서로를 잘 배려하고 좋은 룸메이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착한 다음 날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매트로 타운에 나가게 되었었고, 화요일부터 오티와 수업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새로운 선생님의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에너지는 굉장히 밝고 활기차고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늘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반에게 맛집 리스트라던지 해피 아워라 식당들도 알려주시고 공평하고 동등한 수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피치가 조별 발표 활동 등 한국에서의 수업 방식과는 많이 다를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수업 방식과 공부가 더 즐거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랑가라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에 직접 랑가라를 탐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도서관 등을 가보고 어디에 스타벅스와 팀 홀튼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안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마주치게 되었고 대학교 내에 데이케어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뭇 다른 분위기가 있어 어떤 점이 다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담당 선생님께 데이케어 센터 참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보았었고 그 후에 처음에는 범죄 경력 관련 내용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가 아주 나중에 마지막 주에 참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 케어 참관은 직접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도 있었고 아이들과도 잠깐의 소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이들의 이름을 발음하는 문제들을 직접 겪어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곧바로 선생님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고 아이들에게 선생님도 못 할 수 있지만 틀린다면 다시 알려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 곳은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깨져 있고 정말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주가 되어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아마 킨더가든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곳의 데이케어 센터를 보면서 한국과 다른 점을 찾아 볼 수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놀이터의 형태는 비슷하면서도 재료 등이 다른 것을 보면서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아쉽기도 했지만 알차게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게 아닌 만큼 학교를 통해서 안전하고 체계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부터 저는 영어 실력을 꼭 올리고 싶었고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실력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

도 밴쿠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라 영어 실력을 많이 향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점에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업 방식이 주로 앞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는 것인데 스피치를 하는 기술, 비언어적 언어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고 대본을 보지 않고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터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걱정이었던 한국인들끼리 영어를 쓰는 점이 eo 규칙과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쓰면서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찾을 수 있고 점차 영어를 써나가는 것이 피곤함에서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할 무렵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언어 공부 뿐만 아니라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이 끝나고 남은 시간에는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곳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글로벌 빌리지 기숙사에서 지난 학기에 만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빌리지에 살면서 많은 친구들과 헤어짐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그 친구의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된 적은 처음이라 굉장히 의미 있고 고마움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인 친구가 있다는 점이 캐나다 밴쿠버를 더 이해하고 더 재미있는 곳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많이 신경 써주고 같이 여행도 가며 즐겁고 한국에 있을 때 만큼 커다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친구의 친구들을 소개 받으면서 정말 더 실생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글을 쓰면서 하게 됩니다.

캐나다 밴쿠버가 가장 좋았던 것은 자연과 함께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자체에 공원도 많고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밴쿠버를 가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배치되어 있던 재활용 분리수거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가지가 넘는 분리수거 통을 보며 재활용에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 뿐만이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높은 휘슬러 산에서조차 쓰레기 통 분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교도 재활용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큰 힐링을 가져다주는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방파제 길을 자전거를 타면서 돌거나 장미 정원을 보기, 해변 가를 거닐기, 아름다운 구름을 보기, 노을지는 모습 바라보기 등 혼자서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으면 멈춰 기다리는 차들을 보면서 여유롭고 급하지 않은 일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다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겨울에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런 어학연수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공 지식들을 적용하면 비교 분석해볼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환학생을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생활은 교환학생을 잘 준비하여 캐나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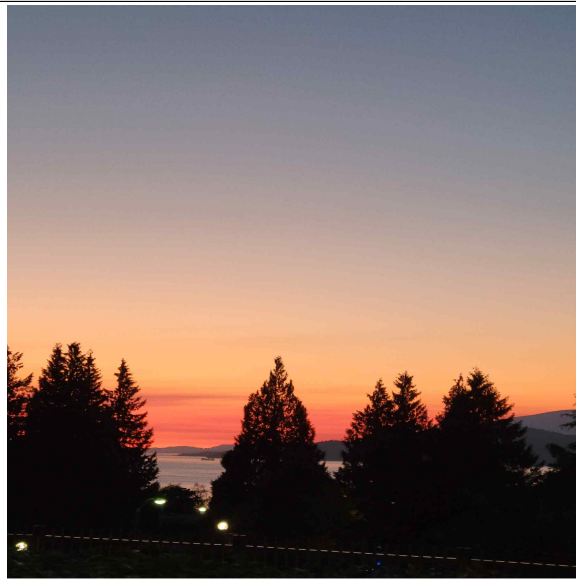
	
<p>랑가라 대학교</p>	<p>그랜빌 아일랜드 페리</p>
	
<p>다운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야경</p>	<p>게스 타운 시계탑</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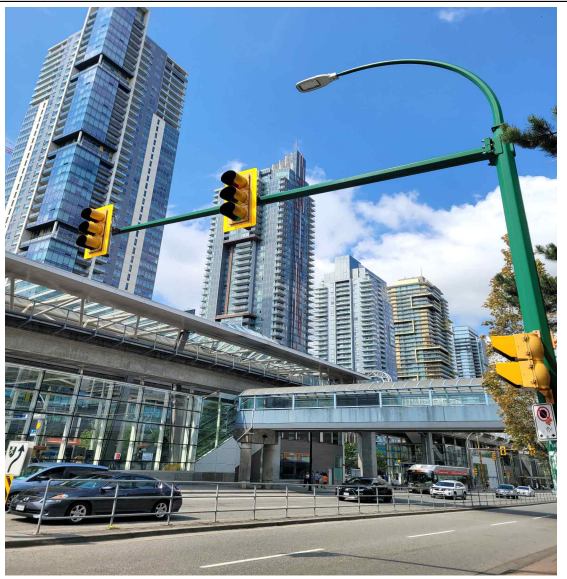
딤코브 카약킹



휘슬러 곤돌라



UBC



매트로 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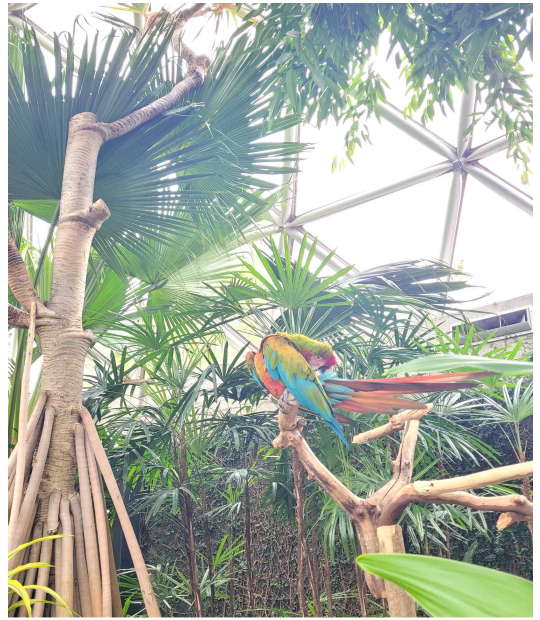
스탠리 파크 로즈가든



화이트 스팟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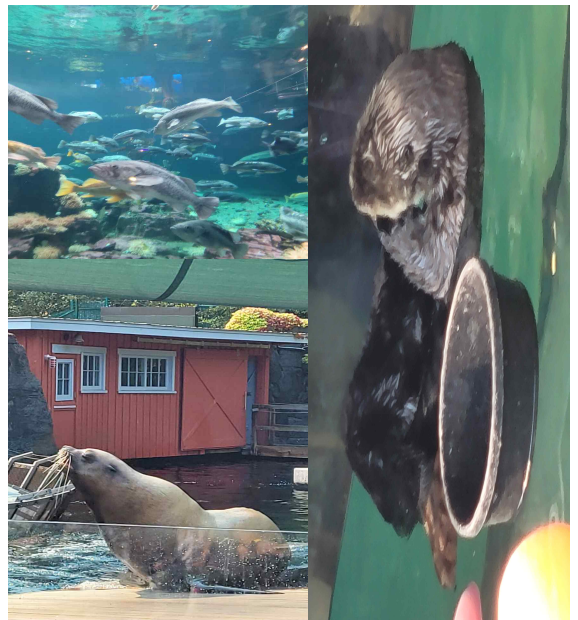
밴쿠버 뮤지엄 근처 바닷가



퀸 엘리자베스 공원 안 식물원



빅토리아 아일랜드 애프터눈 티



밴쿠버 아쿠아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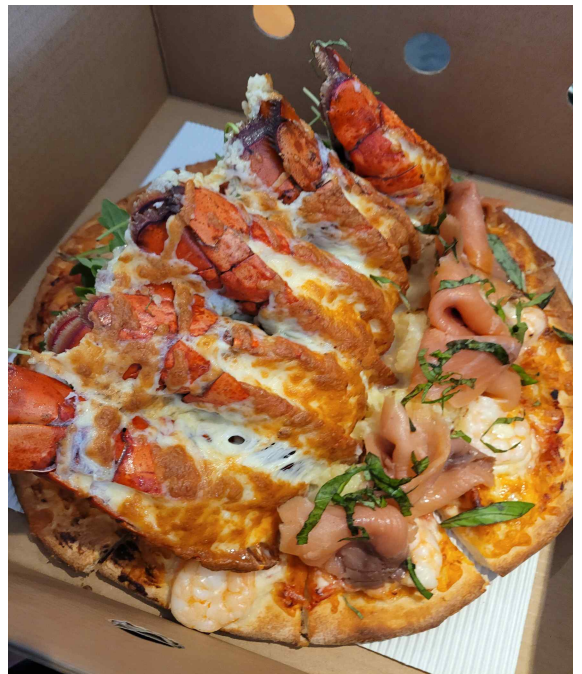
밴쿠버 도서관



리치먼드 나이트 마켓



캐필라노 브릿지



리치몬드 스티븐스 랍스타 피자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xx	학번	2019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저의 경우, 홈스테이에서 1시간 정도로(학교로 가는 다양한 루트가 있었으나 위험한 구역을 지나는 루트를 제외하고 나니 버스 > 지하철 > 지하철 순으로 여러 번의 환승이 필요하였다.) 학교까지의 거리감은 있었지만, 다운타운, 퀸 엘리자베스 공원 등 대부분의 장소를 30분 이내로 갈 수 있어 학교 위치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건물의 이동이 쉬운 편이며 스타벅스나 팀홀튼 등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좋았습니다.</p>
수업	<p>학교를 가기 전에 보았던 레벨테스트(Listening, Reading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토익과 비슷한 구성이라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를 통해 반이 나누어집니다. 저의 반의 경우 한국인 6명, 일본인 7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업내용은 캐나다 문화, 발음 연습, 단어, 독해 등이 주를 이루며 참여형 수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여러 번의 파트너 체인지를 통해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쉽고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반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반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p>
Activity	<p>일주일에 2번은 Activity(Discover Vancouver, Museum of Vancouver, Kayaking, Aquarium, Capilano Bridge)가 있습니다.</p> <p>Discover Vancouver - 밴쿠버에 왔다면 무조건 가야 할 장소들을 5~6명의 조를 이루어 방문합니다. 많은 장소를 하루 종일 걸어 다니기에 편한 운동화는 필수였습니다.</p> <p>Kayaking - 물에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 물이 튄 수 있어 방수가 되는 옷이나 운동복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밴쿠버는 햇빛이 강하여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였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의 초가을 날씨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름처럼 정말 더운 날도 있고, 가을처럼 쌀쌀한 날도 있어 입고 벗기 편한 걸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밴쿠버는 치안이 좋아 안전하지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막차 시간도 한국보다 이른 것 같아 너무 늦어지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	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 처음엔 방이 지하여서 당황했었지만, 호스트 가족들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라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어학연수를 같이 갔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규칙이나 유의사항 등이 없었던 편이라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세심하게 케어를 해주셨던 터라 낯선 곳에서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기숙사 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점심(호스트가 중국계 분들이셨는데 다행히 음식이 입맛에 맞아 점심을 따로 사 먹거나 하진 않았다.)은 무조건 호스트 분들께서 챙겨주셨고 저녁은 거의 친구들과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물가가 비싸서 외식에 대부분의 지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점심 식비가 거의 나가지 않다 보니 물가 대비 생각보다 많이 지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	저의 경우, 함께 갔던 다른 친구들보다 통학시간이 길었습니다. 학교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으나, E hastings st(홀리스, 약물중독자들이 많은 곳이라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최대한 그 거리를 피해 돌아서 갔었다.)을 지나가야 해서 다른 루트(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게 되는데 총 2번의 환승이 필요하여 홈스테이하는 동네가 등하교를 하기에 그리 좋은 위치는 아니었다.)로 등하교를 하였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로밍	44,000원	
환전	1,000,000원	
합계	3,948,273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 홈스테이를 하는 것에 있어 너무 기대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여러 개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홈스테이하는 곳이 추울 수도, 더울 수도 있어서 환절기에 입던 잠옷을 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캐나다는 멀티슈가 정말 비싸다고 해서 멀티슈 조그마한 것을 2개 챙겨갔었는데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다 왔습니다. 큰 사이즈는 짐을 차지할 수 있으니 조그마한 사이즈의 멀티슈를 여러 개 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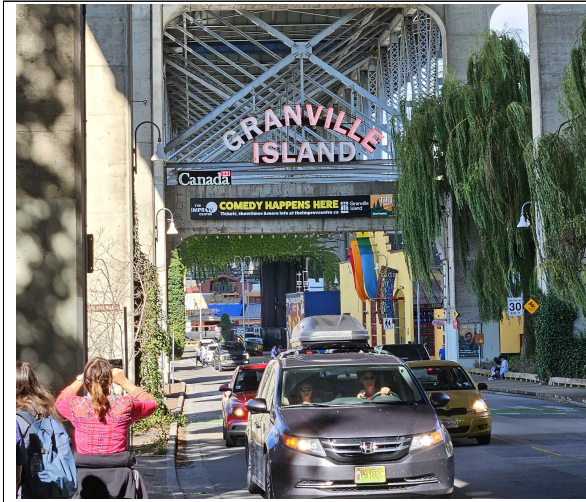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캐나다에서의 3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정말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도 그렇다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나가있어 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무서웠고 긴장되고 떨렸지만, 처음이었기에 새로웠고 신선했고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3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곳에선 일본인 친구들과 수업을 들었는데 언제 이렇게 비슷한 또래의 일본인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해보겠냐며 먼저 말도 걸고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단기 어학연수로 이곳을 오게 된다면 다양한 친구들과 다양한 대화를 하려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도 자주 일본인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중에서도 스탠리 파크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고 사진도 찍었던 건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곳에서 직접 경험해 보고 생활해 보니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저 자신에 대한 확신도 생겼던 정말 후회없는 활동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그랜빌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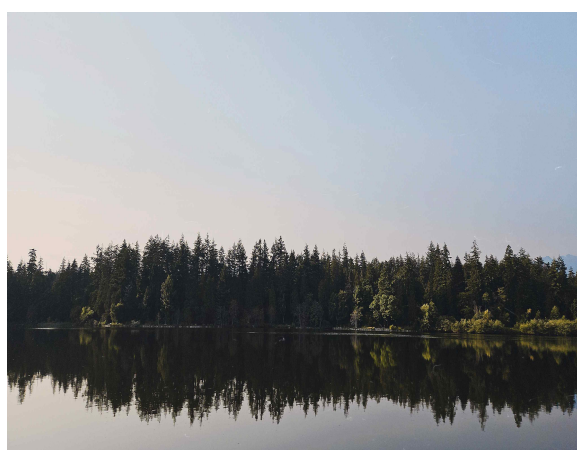
킷질라노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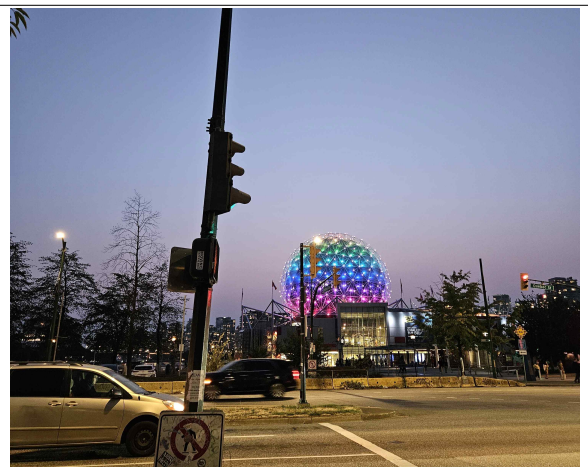
딥 코브



빅토리아 아일랜드



스탠리 파크



사이언스 월드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xx	학번	2021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일반적인 대학 규모의 사이즈로 청결하고 좋은 곳에 위치하여 있다. 친절함과 다정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분위기에 매우 흡족한다.</p>
수업	<p>수업하며 가장 좋았던 점 : 매일 웃고 계시는 선생님과 함께 생활을 하며 긍정의 힘을 얻고 긍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느꼈던 거 같다.</p> <p>수업방식 : 매번 바뀌는 팀 구성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p> <p>수업내용은 캐나다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 이해, 각 나라의 문화와 이해를 가장 중요시 했던 거 같고 세계시민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면서 팀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였다.</p> <p>강사님 : 실수를 두려워 하지 마라고, 실수를 더 만들어 보라고 하는 등의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시고 도전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p> <p>정말 스트레스 하나 없이 즐기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었던 수업이다.</p>

Activity	밴쿠버 박물관, 카약, 아쿠아리움, 캐필라노 브릿지 등의 활동을 하였다. 평소에는 해보지 못한 것들, 가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밴쿠버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 같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첫 경험이었기에 너무 만족한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여름이다. 햇살은 강하지만 덥지 않은 선선한 날씨였다. 선크림이 필수이고 해가 강하기 때문에 타기 쉬운 날씨이다.
안전	전반적으로는 안전하다. 하지만 일부의 거리가 마약과 홈리스들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가 아닌 여러명에서 다닌다면 좋을 거 같다.
숙소	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 가족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깨끗한 환경 속에 만족하며 3주를 마칠 수 있었다. 나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식사	기숙사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기타() 아침점심은 주로 집에서 먹고 저녁은 친구들과 놀고 난 이후 저녁을 먹고 집으로 귀가했다.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족들에게 전달하면 식사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통	홈스테이, 학교 모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교통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및 밥	1,500,000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캐리어 용량을 최소한으로 하여 돌아올 때 기념품을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을 거 같다. 정말 필요한 것만을 위주로 챙겨 거기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은 구매하면 좋을 거 같다.

홈스테이 이용시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메일을 보내 수건 여부, 드라이 여부 등을 물어보면 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첫 단기어학이라 그런지 가서 직접 해보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처음에는 시간이 느리게 가서 행복했지만 귀국 날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던 거 같다. 여러 나라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챙겨주는 것에 너무 행복했던 거 같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도전과 실패에 대한 마인드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나의 삶에 대한 계획수립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밴쿠버는 여유가 가득하고 개방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 같아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여유라는 것을 품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또 다시 가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박물관 가기 전 셔틀 앞에서 사진찍기</p>	<p>캐필라노 브릿지에서 사진찍기</p>
	
<p>UBC 가서 힐링하기</p>	<p>페리타고 빅토리아 다녀오기</p>
	
<p>키칠라노 피치에서 사진 찍기</p>	<p>홈스테이 같이 사는 친구들과 사진찍기</p>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한xx	학번	2020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캠퍼스 크기가 크지는 않으나 팀홀튼, 스타벅스, 북스토어 등 필요한 것들 다 갖춘 학교였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시설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방학기간이어서인지 캠퍼스 내에 학생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위치는 다운타운이나 개스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등 놀러가기에 좋은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3개의 분반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1레벨 반은 일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3레벨 반은 일본인과 한국인 반반 정도의 비율이었고 브라질인과 중국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3레벨 반이었는데 약간의 스피킹 게임과 문법, 그리고 상당 비율의 발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간단한 발표를 팀원들과 즉석에서 준비해서 하였고 두 번의 피피티를 준비하여 발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님께서 성격이 엄청 활달하셔서 반의 분위기를 재미있게 끌어주셨고 반의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숙제는 가끔씩 있었으나 어렵지 않아 부담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발표와 소통이 중요시되던 수업이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디스커버 밴쿠버, 밴쿠버 뮤지엄, 카약킹, 아쿠아리움, 캐필라노 브릿지 등의 Activity를 하였습니다. 모든 Activity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출발하였고 버스 대절, 입장료를 포함해 어떠한 추가비용도 없었습니다. 디스커버 밴쿠버는 팀별로 인솔자님과 함께 개스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올림픽 빌리지를 걸어서 방문하고 작은 페리를 타는 것을 포함한 활동이었습니다. 거리가 먼 캐필라노 브릿지와 카약킹 외에는 Activity가 끝난 장소에서 학교로 돌아갈지, 남아서 자유 시간을 가질지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필수는 아니지만 카약킹을 할 때 약간의 물이 튀기기 때문에 방수팩과 편한 복장을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밴쿠버가 춥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제가 간 후 2주차까지는 햇빛이 짹짹하고 따듯 혹은 더웠습니다. 그러나 한국보다는 온도가 낮고 습하지 않아 매우 쾌적하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3주차에는 화재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온도가 확 떨어져 환절기 가을 날씨를 연상케 했습니다. 여분의 긴팔과 비염약, 감기약을 챙기는 걸 추천 드립니다.</p>
안전	<p>홈스테이는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홈리스를 전혀 마주치지 않을 만큼 안전했습니다. 밤에도 산책하는 가족들이 있어 귀갓길이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내로 나가면 홈리스들을 마주칠 수 있는데 이들 또한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기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귀중품도 한국보다 유의하여 들고 다니기는 했지만 안전했습니다.</p>
숙소	<p>기숙사() 홈스테이 (V)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운 좋게도 랑가라 컬리지와 걸어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홈스테이에 배정받았습니다. 별다른 규칙이 없었고 샤워도 자유로웠으며 아침은 시리얼이나 토스트 등을 스스로 해먹고 점심은 홈 맘께서 매일 준비해주셨습</p>

	<p>니다. 저녁은 차려져있는 음식을 데워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로 나가서 저녁을 먹긴 했지만 늦게 귀가하는 경우에도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숙소는 1층에 신발장, 2층에 가족 공간이 있는 형태로 아담하지만 깔끔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p>
식사	<p>기숙사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V)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의 호스트 가족은 필리핀 분들이셔서 필리핀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입에 맞는 음식도 있었고 아닌 음식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음식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맛있었습니다. 점심은 주로 샌드위치나 빵이어서 조금 물렸습니니다.</p> <p>외부 식당은 실패한 적은 없지만 가격이 정말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제외하면 최소 2만원이고 6명 이상의 친구들과 함께 간다면 의무적인 20%의 팁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식당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식이 정말 비싸다고 느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이지만 홈 맘께서 출근시간에 항상 차로 데려다 주셔서 더욱 편리하게 갔습니다. 차로는 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p> <p>시내 교통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고 지하철 노선이 간단하고 버스도 많아 하교 후 놀러가기 편리합니다. 학교에서 1시간~1시간 반 내로 밴쿠버에서 유명한 곳은 거의 다 갈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노스 밴쿠버나 하교 후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곳에 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및 외식	약 1,000,000원	현지 카드 결제

합계	약 4,0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저는 현금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갔음에도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5달러 정도와 동전이 현금으로 필요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외에는 전부 카드로 사용이 가능했으니 현금을 많이 챙기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카드는 해외 수수료가 없는 마스터 카드를 발급받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외식 후 더치페이할 때에도 식당에서 각자 계산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 때는 캐리어를 기내 수화물과 위탁수화물로 분리하여 여유 있게 가져가고 하교 후와 주말이 모두 자유 시간이니 밴쿠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많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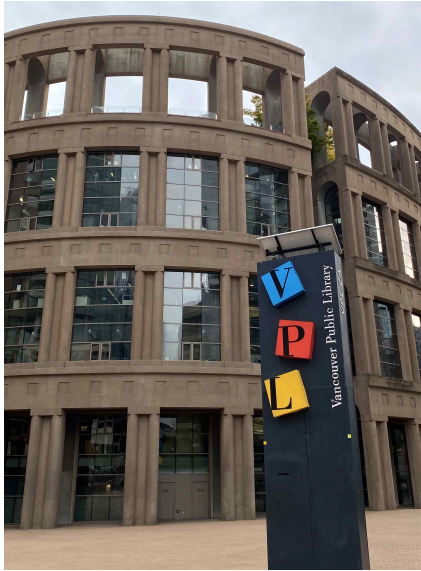
아시아 이외에 이렇게 먼 국가로 떠나보는 것이 처음이고 그 곳에서 3주를 생활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S-FLEC 수업을 준비할 때부터 면접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들이 무색하게도 이번 방학 동안의 3주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밴쿠버의 자연 경관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매일매일 바다와 공원을 보고 아기자기한 주택들을 보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마음껏 하고 온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을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은 물론 길에서 낯선 사람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해보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하교 후에는 친구들과 어디를 갈지 정하느라 매일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비록 제 영어 실력은 많이 부족했지만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부족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다음에는 더 능숙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해외에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계획하는데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영어에 귀를 트이고 표현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 공부할 것이며 추후에 어학연수를 다시 갈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 없이 도전하고자 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Vancouver Public Library



Capilano Suspension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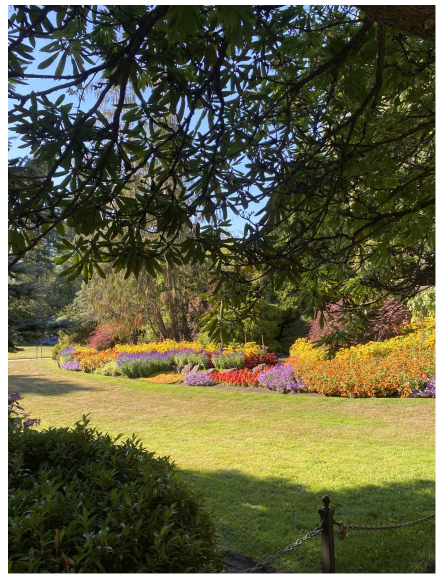
Canada Place



McArthurGlen Outlet



Kitsilano Swimming Pool



Queen Elizabeth Park